

정원 미로의 형태와 의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황주영* · 조경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Historical Study of the Form and Meaning of the Garden Labyrinth

Hwang, Ju-Young* · Zoh, Kyung-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survey of the labyrinth/maze in gardens. The term 'garden labyrinth' may seem an oxymoron given that the garden represents the terrestrial paradise, while the labyrinth is a symbol of the most chaotic face of the world. In etymological and ontological terms, however, gardens are enclosed places and this characteristic corresponds to the character of the labyrinth, which is the one of the oldest signs in human civilization, symbolizing the paths of human life filled with uncertainty and complexity.

The garden labyrinth has developed in various forms and shapes since the Renaissance period. Literature and paintings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of the concepts of the garden labyrinth, especially in the form of the 'garden of love'. While the labyrinths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focused on plane shapes and symbolic and/or spiritual meanings, later garden labyrinths emphasized the three dimensional form and synesthetic pleasures. New patterns, which deviated from the classical unicursal form, emerged in the Petit Parc at Versailles in the 17th century. The garden labyrinth/maze was easy to adopt in formal gardens because of its geometric form, but for that reason, it went on to decline during the fad of picturesque garden. In this study, a brief history of labyrinths, the patterns, forms, and arrangement of the garden labyrinths in the formal gardens of the Renaissance and Baroque periods and its meanings are reviewed.

Key Words: Maze, Garden Element, Renaissance Garden, Garden of Lov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원의 한 요소인 정원 미로의 유형과 형태 그리고 그곳에서의 행위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인 미로는 어원적 정의나 물리적 형태상 기본적으로 위요된 장소인 정원과 많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고대부터 발전해온 미로는 르네상스 시기에 정원의 요소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한다. 평면적이고 상징적·종교적 의미가 강했던 고대와 중세의 미로와 달리 입체적으로 조영된 정원 미로에는 공감각적·유회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문학작품과 회화를 통해 정원 미로의 개념이 먼저 보급되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사랑의

Corresponding author: Ju-young Hw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82-9340, E-mail: juyounghwang@gmail.com

정원' 유형의 정원 미로가 유행했다. 이어 17세기 베르사유 정원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길을 따라 가는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의 형태가 나타난다. 기하학적인 형태상 정형식 정원에 도입이 용이했던 정원 미로는 이후 취향의 변화 등으로 정원의 요소로서는 점차 쇠퇴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간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한 미로와 지상에서 가장 안락한 장소인 정원이라는 두 요소가 만나 정원 미로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조망해 본다.

주제어: 미궁, 정원 요소, 르네상스 정원, 사랑의 정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로는 인류의 문명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세상의 질서를 처음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이는 설계한 것이기에 예측가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묘사한다. 길 위에 새겨지던 미로는 인류가 정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성소에 자리 잡아 신성함을 상징하게 되었고,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의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그 어원¹⁾이나 물리적 형태상 위요된 정원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적어도 하나의 입구와 출구 또는 중심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를 갖추었지만, 출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표지도 없는 복잡한 길(Attali, 1996: 31)'인 미로와 근본적 성격 중 하나를 공유한다. 그런데 정원과 미로가 세계와 상징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두 공간 유형의 성격은 동일하지 않고 선험적으로도 등가적이라기보다는 유사한 관계이다. 혹은 이 둘은 대비되는 두 가지 성격의 장소의 제유로 사용되기도 한다²⁾.

오늘날 우리는 비단 정원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미로를 둘러싼 담론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는 세계가 근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성의 힘으로 작동하는 투명하고 직선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미로가 삶의 여정의 복잡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로와 관련된 논의는 신화 연구나 심리학, 영적 치유, 조형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문학과 예술, 신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포로도 널리 활용되어 이를 둘러싼 담론도 독자적 층위를 이루고 있다³⁾.

타 분야에서의 미로가 대개 평면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것과 달리, 르네상스 시기 정원 요소로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정원 미로는 3차원의 입체적인 실물로 구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과 미로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르네상스 시기부터 어떻게 정원에 미로가 등장하게 되었고, 미로라는 공간적·상징적 배치가 이 시기 정원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조성되었으며, 정원의 성격과 경험에서 미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관련 연구

미로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초에 이르러야 시작되었다. 미로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고고학과 신학,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자 중 매튜스(Matthews, 1922)는 미로를 그 기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융과 케레니는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신화에서의 미로를 살펴보았으며(Jung and Kerényi, 1941), 독일 미술사학자 케른(Kern, 1982)은 기능과 테마에 따른 체계화된 연구를 시도하였다. 1980년에는 트로이의 웨일즈 식 이름인 「카이드로이아(Caerdroia)」라는 미로 전문 잡지가 창간되었고, 1982년 베를린에서 창간된 「다이달로스(Daidalos)」⁴⁾라는 건축 잡지는 1983년 제3호를 미로에 관련 특집호로 제작한 바 있다.

근대 이후의 건축사에서 미로 연구는 주로 건축가나 건축이론가들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타푸리(Tafuri, 1987)는 현대의 거대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로 미로를 언급했고, 콜로미나(Colomina, 2002)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Ariadne's Thread)를 건축의 해석과 재생산으로 풀이했다. 다이달로스 신화에 주목한 페레스-고메스(Pérez-Gomez, 1985)는 이를 언제나 변화하며 놀라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인간 존재의 은유로 보았다⁵⁾.

다른 예술 분야에서의 미로 연구도 행해지고 있는데, 가령 둠(Doob, 1990)은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미로를 연구하여 그 메타포적 형태가 문학에 미친 영향을 밝혔고, 라이트(Wright, 2001)는 교회 음악 구조에 나타난 미로적 형태를 연구했다.

정원 미로와 관련해 보면, 대부분의 상기 연구서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르네상스 이후 정원에 등장한 미로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경학이나 건축학 등의 분야, 특히 정원사적 관점에서의 미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원의 의미를 미로와 관련해 살펴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 콜로키움 「세계의 미로로서의 정원(Le jardin comme labyrinthe du monde)」이 주목할 만하다(Brunon, 2008)⁶⁾.

국내의 미로 연구는 주로 문학이나 조형 예술 분야에서 행해졌는데, 미로의 메타포를 차용한 작품 제작과 그 분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건축 분야에서 시도된 박혜성(2000), 강민성(2002), 김윤경과 임중엽(2004) 등의 연구에서는 미로를 공간 체험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대 건축 공간에서 표현된 방식을 도출하고자 했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논거를 구축하고, 정원 내에서의 미로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문헌 내용분석을 통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에 미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사료로 활용한다. 시각적 자료로는 실제 정원에 조성된 미로의 이미지를, 특히 회화와 동판화 등의 그래픽 자료를 통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미로의 형태를 추정해본다.

정원 내에 미로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던 의미에 '정원 안에서의 행위'라는 맥락이 추가되어 고유한 가치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 예술에서 미로를 어떻게 정원의 요소로 활용하였고, 어떤 경향으로 이 공간적·상징적 구성이 나타나 독자적인 의미를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2장에서는 우선 정원에 미로가 나타나기 이전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의 미로의 역사와 기원, 유형, 의미 등을 탐색해 보고, 이어 3장에서는 미로가 정원 구성 요소로 본격적으로 나타난 르네상스 이후의 사례를 통해 정원에서의 미로의 의미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서양 정원에 나타난 미로로 한정되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의 이탈리아와 이후의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경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미로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개념의 검토

1) 정의와 어원

'빠져나오기 힘든 일련의 복잡한 길'을 일컫는 미로(Labyrinth)의 어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그리스어의 라비린토스(λαβύρινθος)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말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때 사용한 양날 도끼(*labrys*)의 집(-*inthos*), 즉 크레타에 있는 크노소스의 궁에서 유래했다고 본다(Kern, 1982: 25). 혹은 크노소스의 궁 내부가 수많은 구불구불한 복도와 막다른 길,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고, 왕을 상징하는 양날 도끼⁷⁾가 많이 그려져 있었기에 궁 자체가 하나의 미로 같았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그림 1 참조).

어원 자체가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미로의 상징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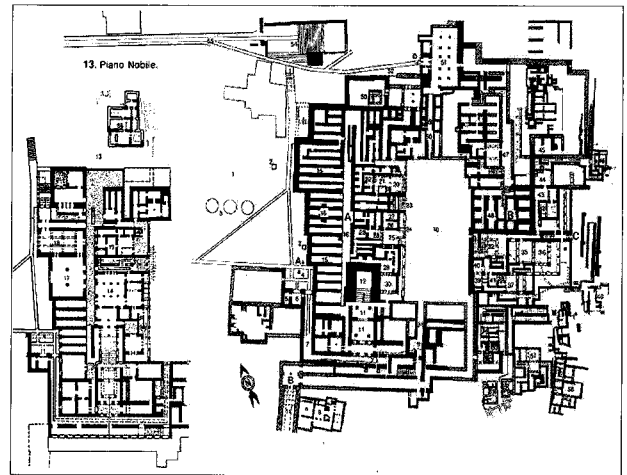


그림 1. 크노소스 궁의 도면

자료: <http://www.dilos.com>

있어 신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대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름다운 황소를 빼들렸고, 포세이돈은 이에 대한 벌로 부인 파시파에가 황소에게 정욕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이달로스가 교묘하게 만든 암소 틀 안에 들어가 황소와 사랑을 나누고,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다.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시켜 '통로를 분간하는 표지가 될 만한 것은 모두 뒤엎어버리고, 수많은 우회로와 굴곡으로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 아주 이상한 미궁'(Ovidius, 3: 340)을 짓고 미노타우로스를 이곳에 가두었다. 미노스는 정복한 아테나이에서 9년에 한 번씩 보내온 소년·소녀 7명씩을 미로 안으로 들여보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게 했다. 하지만 세 번째 공물로 온 왕자 테세우스가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명주실을 풀면서 미로 안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명주실을 따라 미로를 빠져나왔다⁸⁾. 신화 속 미로의 존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크노소스 궁은 완전히 발굴되었다. 또한 미로와 미노타우로스의 모습을 담은 은화도 이곳에서 발견되어, 신화와 현실의 밀접한 관계를 반증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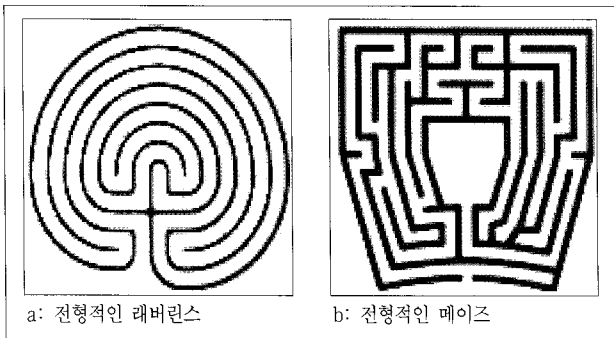
보통 라비린스(labyrinth)와 메이즈(maze)는 미로나 미궁이라는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엄밀하게 이 둘은 구분된다⁹⁾. 미로는 늘 길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상징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석기시대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라비린스는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단일한 경로로 이루어진데 비해, 약 500년 전 경에 등장한 메이즈는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요구하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 쉬운 것이다(Carpeggiani, 1990: 84)(그림 3 참조). 즉, 라비린스는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서로 교차하지 않는 길들이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되접어 꺾이고, 가능한 가장 많이 돌아가는 내부 공간을 지니고, 반복적으로 미로 속에 들어온 이를 중심에 가깝게 가지지만 모든 길을 다 지난 마지막에서야 중심에 이르게 되고,



a: 테세우스의 생애 장면을 담은 로마 모자이크 b: 미노타우로스를 미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테세우스 c: 크레타 크노소스 궁에서 발견된 은화

그림 2. 신화 속의 미로

자료: a: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1세기, b: 대영박물관, 기원전 440년경, c: 파리 국립도서관, 기원전 450년경



a: 전형적인 래버린스 b: 전형적인 메이즈

그림 3. 전형적인 미로의 형태

자료: <http://www.labyrinths.net>

들어왔던 곳으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Kern, 1982: 23). 한편, 메이즈는 반드시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구와 출구가 다르기도 하고, 갈림길에서는 행로를 결정해야 하고, 한 번 왔던 길을 다시 지나가기도 하며, 여러 개의 막다른 길이 있어 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정원에서의 미로는 르네상스 시기까지는 대부분 래버린스형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메이즈형이 주를 이루어 보다 복잡하고 화려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2) 상징적 의미

상징주의와 심리학에서 신화는 모순투성이인 인간의 삶을 설명해 주는 기제로 여겨졌고, 특히 융 학파에서는 신화를 삶의 상징적 여정으로, 그 주인공들을 무의식적 원형의 구현물로 보았다. 인간 사고의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하나인 미로는 복잡함을 은유하고, 유한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나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표현하는 문자 이전의 언어였다. 미로는 인간 운명에 관한 하나의 의미 즉, 세상의 질서를 처음으로 추상화한 것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측 가능성과 동시에 불가능함에 대한 어떤

것을 통해 세계를 묘사한 것이다(Attali, 1996: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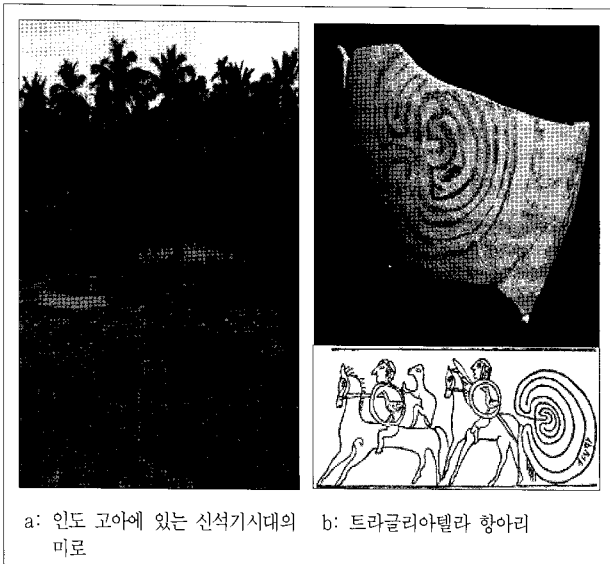
미로의 상징적 의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¹⁰⁾. 인류는 정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과거 유랑 시절의 기억을 의식화, 신화화하기 시작했다. 인류는 자신이 헤매던 길을 모방했고, 이를 이야기로 만들고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탈리는 이를 크게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행으로서의 장례의식, 개인이나 집단이 시련을 이겨낸 이야기나 희생의식, 의식적/무의식적 깨우침, 죽음을 무릅쓴 시련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의 출현/부활'이라는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Attali, 1996: 59-61). 이렇게 해서 미로는 각 문명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모습, 삶의 과정 등에 관한 비밀을 풀어나가는 기제가 되었다.

2. 역사 속의 미로

1) 고대

미로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양 중 하나이며, 지역을 막론하고 나타난다. 초기 인류는 미로 형태의 추상적인 문양을 동굴이나 대지, 무덤, 각종 물품 등에 남겼는데, 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기원하던 것이나 소라고둥이나 물의 지류 회오리 등에서 관찰한 것을 재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그림 4 참조).

문명 시대의 미로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이집트 중왕조 시대의 파라오 아메넬헤트 3세(Amenemhet III)의 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¹¹⁾, 로마 시대에 채석장으로 사용되면서 소실되어 고고학적 증거물은 남아 있지 않다. 미노타우로스 신화로 유명한 크레타의 미로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고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¹²⁾. 한편, 성경은 크레타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음에도, 미로와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¹³⁾.



a: 인도 고야에 있는 신석기시대의 미로 b: 트라글리아텔라 항아리 미로

그림 4. 고대 미로 이미지의 예

자료: a: Brunon, 2008: 23. b: <http://www.labyrintho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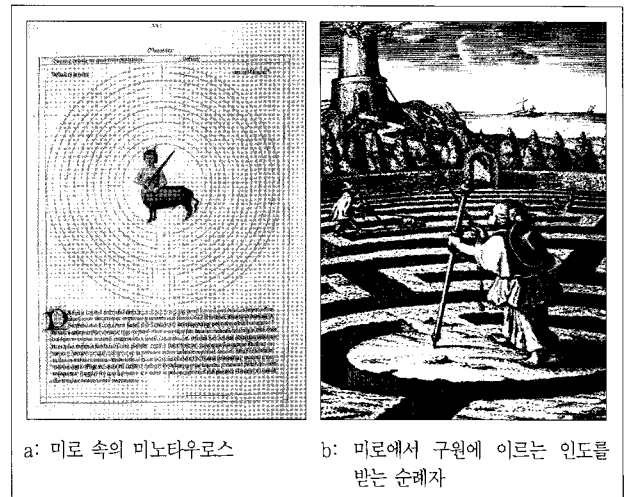


그림 5. 폼페이 미로 낙서

자료: <http://www.culture.lt>

미로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은 인류 문명 초기부터 이어져 왔지만, 실제로 조성된 미로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로마시대의 것부터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폼페이에서는 '미로 여기에 미노타우로스가 산다(LABYRINTHVS HIC HABITAT MINOTAVRVS)'라고 쓰인 낙서가 출토되었다(그림 5 참조).

이 미로는 사각형으로 형태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로마인들은 보다 정교하게 미로를 발전시켰고, 기원전 2세기부터 5세기까지 로마와 그 식민지에서는 모자이크 바닥에 미로를 만드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알베르티는 「건축십서(Dieci Libri)」에서 고대인 즉, 로마인들이 현관 바닥을 사각이나 원형의 미로로 만들었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기도 했다는 언술을 남겼다(Alberti, 1484: 298). 이런 바닥 모자이크의 대부분은 사각형이나 원형의 미로 가운데에 미노타우로스와 테세우스의 싸움을 묘사하는 것이었고, 미로의 경로 전체를 차례대로 다 지나고서야 비로소 중심에 다다를 수 있는 래버린스 형태였다.



a: 미로 속의 미노타우로스 b: 미로에서 구원에 이르는 인도를 받는 순례자

그림 6. 중세 미로 이미지의 예

자료: a: 폰데박물관, 1448. b: 예일대학 도서관, 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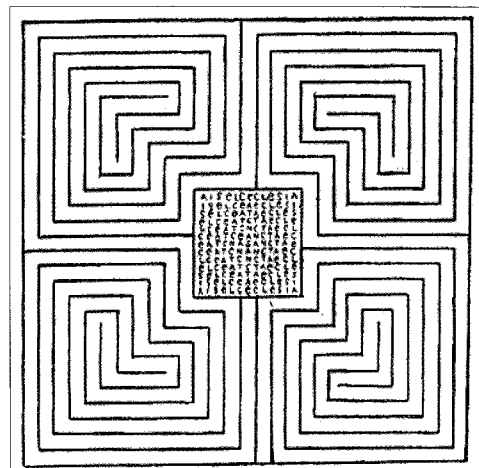


그림 7. 알제리의 교회 모자이크

자료: Matthews, 1922: 55.

2) 중세

기독교가 지배적이던 중세, 미로에는 종교적 상징이 부여되었다. 이 시기 제작된 필사본에서는 신화 속의 미노타우로스와 테세우스의 싸움이 사탄과 구원자 그리스도의 대결로 변용되거나, 미로로 상징된 세계를 헤매던 순례자가 신의 말에 인도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상징했다(그림 6 참조).

중세 시기 실제로 조성된 미로의 예는 주로 교회 바닥에 나타난다. 4세기에 제작된 알제리의 바실리카에 있는 미로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운데에는 '성스러운 교회(SANCTA ECCLESIA)'라는 회문(Palindrome)이 있다(그림 7 참조). 12세기 이탈리아의 교회 바닥에 미로가 등장하고, 13세기 프랑스 성당 입구 바닥에 고도로 정교한 형태의 미로가 나타나는 등 전 유럽의 성당과 수도원에는 바닥 미로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샤프트르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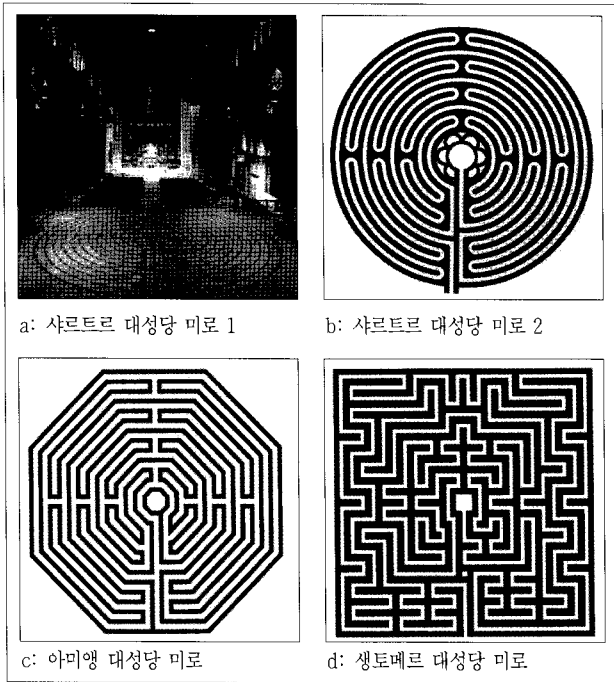


그림 8. 중세 성당 바닥의 미로
자료: Collectif, 2003: 52-53.

Chartres)의 11점의 원형 미로¹⁴⁾나 아미앵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Amiens)의 8점의 팔각형 미로처럼 흑백의 타일로 만들어졌고, 생토메르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Saint-Omer)의 사각 미로에서처럼 중앙에 십자가가 있기도 했다(그림 8 참조). 이런 바닥 미로는 막다른 길 없이 중심까지 이르는 한 갈래의 길로 되어 있고, 신자들은 이 길을 따라 걷거나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문을 외우며 참회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영혼을 정화하고, 깨달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성지순례가 쇠퇴하고 종교 행렬이 드물어지면서 교회 미로는 점점 사라진다. 이어 절대적 신 중심의 신학에서 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사고의 축이 전환되면서, 합리적 사고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직선과 명료한 것이 득세했고, 구불구불한 미로는 쫓아버려야 할 난해한 걸림돌이 되었다. 수세기 동안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했던 미로는 점차 사라져 정원의 미로나 주사위 놀이 등의 사고 유희로 전락했고, 18세기에는 많은 성당의 미로도 파괴되어 소실되었다.

III. 형식주의 정원에서의 정원 미로의 발달

1. 정원 미로의 특징

르네상스 시기 이래 본격적으로 정원 미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가 시작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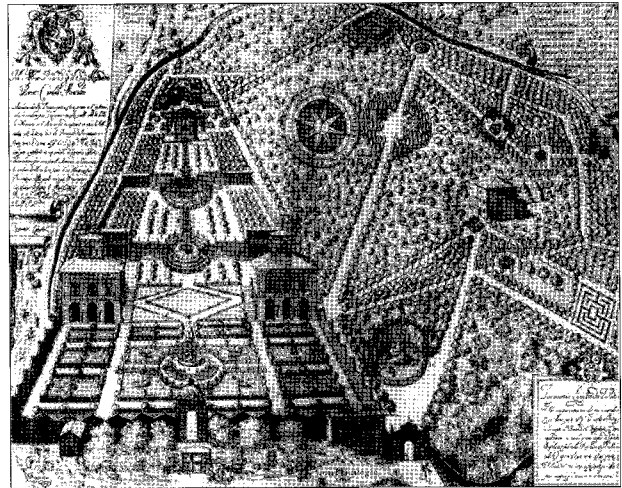


그림 9. 리구스티, 빌라 란테, 1596
자료: 파리 국립도서관

시기에 미로가 정원에 새로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향적인 낙원을 지상에 재현하고자 하는 정원과, 가장 혼란스러운 세계를 상징하는 미로의 만남은 매우 흥미롭다. 근대 이전까지 자연, 특히 숲은 산과 마찬가지로 황야(wilderness)로 간주되었고, 인간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숲은 각종 설화와 민담에서 악마와 마녀, 도둑무리, 야만인이나 괴물이 거주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정원의 미로는 이런 거친 숲을 순치하고 규칙적으로 다듬어 일정한 가시적 질서를 부여한, 그 안에서 안심하고 유희를 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즐거운 놀라움만 있는 장소였다(그림 9 참조)¹⁵⁾. 16~18세기 유럽에는 100여개의 정원 미로가 조성되었고, 각 영지의 체후들은 자기 성과 정원에 미로를 설치하여 여흥과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다(Kern, 1982: 247).

또한, 미로의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패턴에는 악을 벗어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 피지배 계층을 안심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당시 수많은 체후들은 신비한 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선택받은 자의 표시로 미로 패턴을 의복이나 문장에 적용했다(그림 10 참조).

각종 문헌과 이미지를 통해 '정원 속의 미로'라는 개념이 먼저 보급되었고, 이어 실제 정원에 미로가 조영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¹⁶⁾. 이 시기 정원 조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학 작품으로 꼽히는 1499년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프란체스코 콜로나의 「폴리필로의 꿈에서의 사랑의 투쟁(Hypnerotomachia Poliphili)」의 이상적인 정원을 묘사한 텍스트와 알베르티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삽화는 이후 르네상스 정원의 형식적·도상적 측면에 양쪽에 모두 큰 영향을 미쳤다. 「폴리필로」에 나타난 고대 그리스·로마의 유적을 상기시키는 풍부한 모티브는 새로운 영감을 찾던 르네상스 정원에 적합한 것이었고, 본래의 도상적 의미보다는 형태가 더 중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0. 바르톨로메오 베네토: 남자의 초상, 1545
자료: 피츠윌리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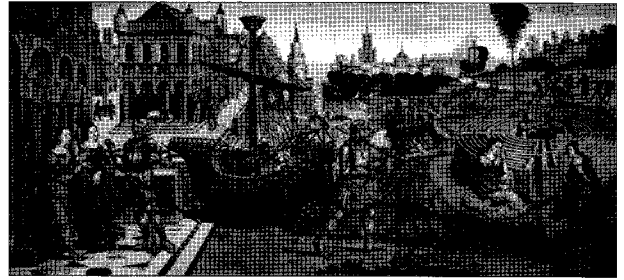


그림 12. 카스니 캄파나의 장인: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1510~1515
자료: 아비뇽 프티팔레 미술관

바위에 새겨진 미로 그림이나 성당 바닥의 미로 같은 평면적인 미로의 잔재는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데 비해, 양감이 있는 입체적인 미로의 예는 크레타의 전설적인 미로를 제외하면 발견하기 힘들고, 더욱이 정원 안에 조성된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¹⁷⁾.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대와 취향의 변화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진 정원 속의 미로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에 제작된 동판화나 회화를 통해 실제로 조성된 미로나 미로에 대한 당대인들의 개념을 보다 잘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정원 내의 미로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용적 패턴의 보급에는 동판화가 크게 기여했는데, 드 프리스(Hans Vredeman de Vries)나 비릭스(Hieronimus Wierix) 같은 네덜란드/플랑드르 화가의 작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그림 13 참조). 또한, 17세기에 페라리(Ferrari, 1633)가 출판한 원예이론서에도 바닥과 천장 장식으로 인기 있던 미로 패턴을 정원에도 적용해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미로 형태가 예시되어 있다(Oechslin, 1982: 54)¹⁹⁾.

2. 실제 조성된 르네상스 정원 미로 사례

1) 이탈리아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에 식물로 만든 미로가 언제 조성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5세기 초의 건축 이론서에 정원 미로 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정원 미로가 알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⁰⁾. 정원에 미로가 활발하게 조성된 16세기에 미로는 크게 향기로운 약초나 꽃으로 부분을 채운 허벅지 높이 정도 되는 낮은 미로와 회양목이나 사이프러스 등을 전정한 성인 남자의 키 정도 되는 높은 미로로 구분된다²¹⁾. 세를리오(Sebastiano Serlio)의 건축이론서에 수록된 낮은 미로(그림 14 참조)는 약 40년 뒤 로마의 빌라 메디치(Villa Medici)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15 참조). 비슷한 형태를 취한 빌라 데스테(Villa d'Este)와 빌라 란테(Villa Lante)의 미로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빌라 데스테의 경우, 뒤페락(Etienne Dupercac)의 동판화에 있는 4개의 미로 중 2개는 아예 조성되지도 않았고, 이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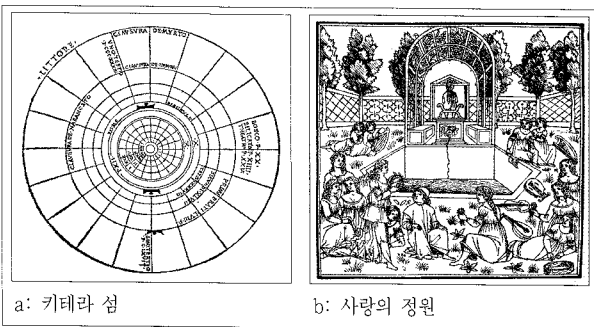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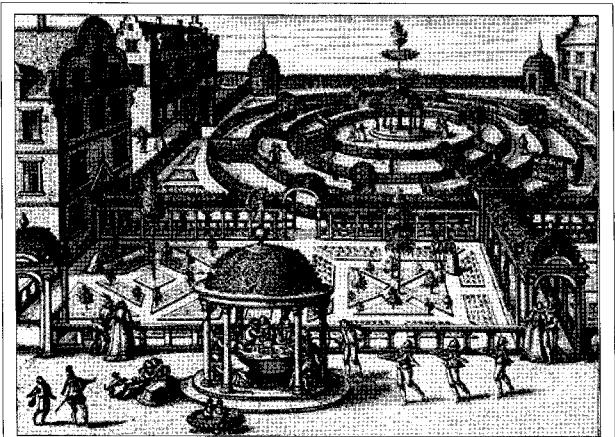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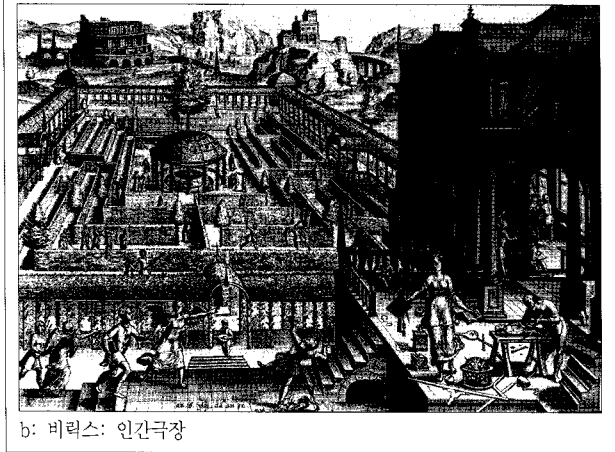
그림 11. 폴리필로의 꿈에서의 사랑의 투쟁의 삽화
자료: a: Colonna, 1499: 311., b: Colonna, 1499: 378.

작품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성소인 키테라 섬은 20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다시 20부분으로 분할되었다고 묘사되었다. 사이사이를 토피어리와 전정된 나무 덤불로 구분한 원형의 섬은 그 자체가 하나의 미로를 구성하고, 연인을 찾아다니는 폴리필로의 여정 자체와 묘사된 정원의 형태 또한 르네상스 시기 유행한 '사랑의 정원'을 예고한다(그림 11 참조).

고전 문화를 되살려 이를 재해석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 미로의 양식도 널리 사용되었고, 테세우스 신화와 관련된 주제의 조형예술 작품도 인기가 있었다. 이제까지는 평면적이었던 미로가 입체적인 형태로 각종 도상과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르네상스 시기 때 미로 이미지에 생긴 큰 변화이다(그림 12 참조).



a: 드 브리스: 녹색의 우아한 정원과 다양한 형태



b: 비릭스: 인간극장

그림 13. 정원 미로의 동판화

자료: a: 델프트 대학 도서관, b: 뉘른베르크 국립박물관



그림 15. 파올로 주키: 로마 빌라 메디치, 1576

자료: 로마 빌라 메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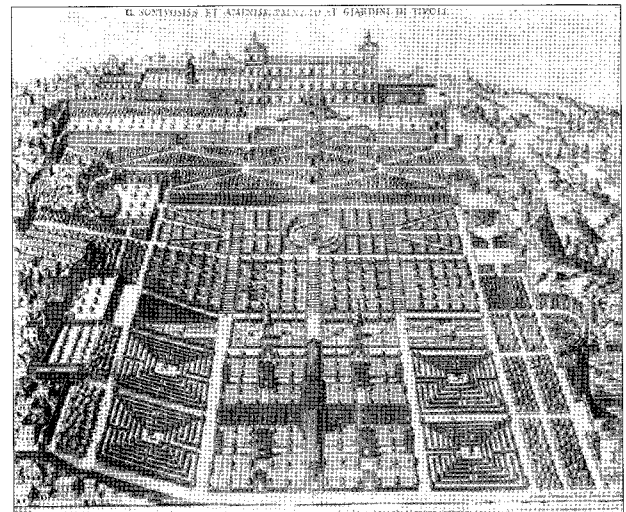


그림 16. 뒤페락: 빌라 데스테, 1573

자료: 대영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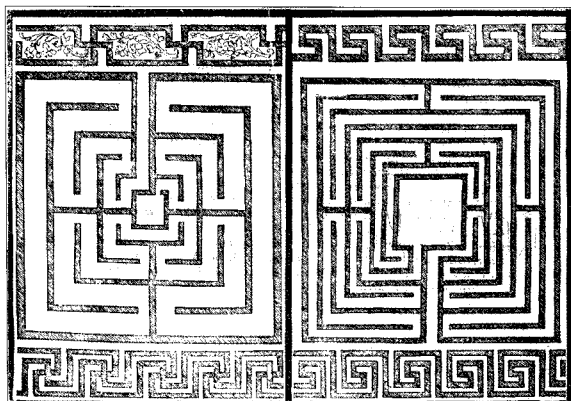


그림 14. 세를리오의 미로 디자인

자료: Serlio, 1619: 388.

리토 데스테 추기경(Cardinal Ippolito II d'Este)의 사후 관리 부족으로 급격히 손상되었다(그림 16 참조)²²⁾. 마찬가지로 총림 속에 있던 빌라 라테의 미로 또한 1588년경 이미 소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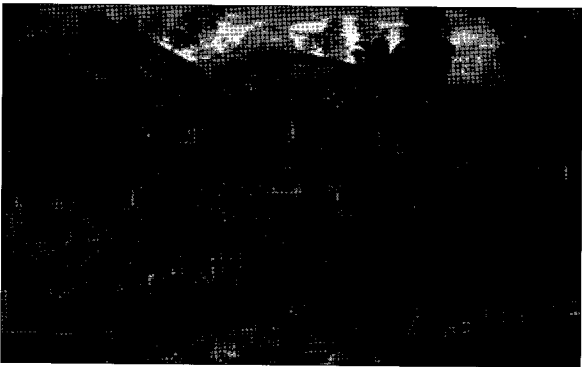
르네상스 시기 정원 미로는 독창적인 기법이라고 여겨졌고,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디자인은 질서와 인

간의 기술을 나타냈다. 고전의 재발견으로 다시금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가 주목받았고, 신화속의 다이달로스는 고대의 예술적·기술적인 업적을 상징하게 되었다. 당시 정원에 미로를 만든 이들은 다이달로스의 후예이자 그를 능가하는 자들이라고 여겨졌고, 정원 미로 또한 혼란대신에 즐거움이나 뛰어난 기술을 지시하게 되었다(Oechslin, 1982: 54). 초기의 정원 미로는 고대 로마의 바닥 모자이크를 정원에 입체적으로 만든 한 개의 길로 이루어진 래버린스였으나, 16세기 말부터 점차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메이즈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장식성이 강화되면서 점점 더 문양은 복잡해졌고, 유희적 성격도 강화되었다.

다이달로스에 필적한 기술로 제작된 정원 미로에서는 미로의 본래의 상징적 의미와 정원에 적합하게 순치된 형태가 결합되었다. 미로는 대개 사각형이나 팔각형, 원형 같은 형태로 조성되었고, 길을 따라 가면 중심에 도달하는 동심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종의 패턴처럼 기하학적 형태로 조성된 미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정형식 정원에 하나의 구성단위로 도입되기에 용이했고, 조원가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안을 충실



a: 플랑드르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16세기



b: 포초제라토: 사랑의 정원, 1579-84

그림 17. 사랑의 정원

자료: a: 런던 메릴본 크리켓클럽, b: 영국 왕실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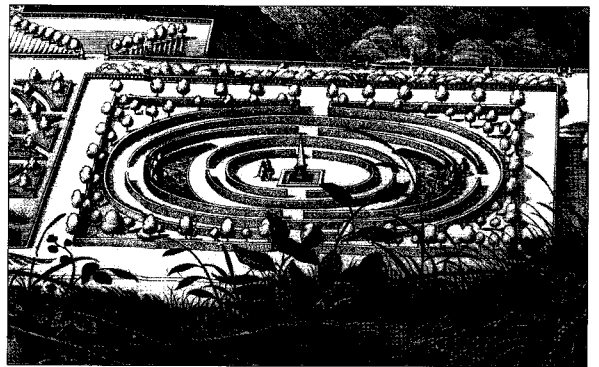
하게 제한할 수 있었다. 또한, 미로는 그 유희적 성격상 기하학적 성격이 강한 중심축에서 벗어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³⁾. 이 시기 고안된 정원 미로의 중앙에는 미노타우로스 같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무나 분수, 조각처럼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 점경물이 놓인다. 이런 미로 정원은 특히 회화를 통해 '사랑의 정원(jardin d'amour)'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그림 17 참조). 갖가지 향기로운 식물들이 기하학적 형태로 다듬어진 구불구불한 미로를 따라 걸어가며 정원 방문자들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공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공감각적·유희적 성격은 르네상스 정원 미로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된다²⁴⁾.

2)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에서도 정원 미로는 점차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의 성당 바닥에 있는 수많은 미로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미로가 지니고 있던 종교적·상징적 의미는 사라져 세속적인 여흥거리가 되었고, '다이달로스의 집(maison de Dédalus)'이라고 불렸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의 명으로 설계된 퓌르리 정원에 미로가 등장했고, 뒤세르소(Jacques Androuet du Cerceau)는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들(Les plus excellents bastiments de France)」에



a: 푸키에르: 호르투스 팔라티누스, 1620



b: 살로몽 드 코: 호르투스 팔라티누스, 1620

그림 18. 호르투스 팔라티누스

자료: 하이델베르크 박물관

서 정원 미로를 묘사했다.

독일의 정원에도 미로가 나타나는데, 1613년에서 1618년 사이 프랑스의 건축가 살로몽 드 코(Salomon de Caus)가 설계한 하이델베르크의 호르투스 팔라티누스(Hortus Palatinus)가 일례이다. 비록 30년전쟁으로 중단되어 완성되지 못했지만, 동판화 자료를 통해 정원 설계에 있는 미로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참조).

3) 바로크 정원에서의 정원 미로의 양상

17세기 후반부터 정원 미로에는 전통에 충실한 쪽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두 가지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바로크 형식주의 정원인 빌라 발산지비오(Villa Valsanzibio)나 독일의 헤렌하우젠(Herrenhausen)의 미로처럼 전통에 충실한 쪽이 수적으로는 우월했다. 부분적으로는 기하학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꾀한 예로는 빌라 피자니(Villa Pisani)의 미로를 들 수 있는데, 전형적인 미로가 사다리꼴의 땅에 만들어졌고, 가운데에는 미네르바의 조각상이 있는 탑을 놓아 중앙에 도착하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 햄튼 코트(Hampton Court)의 메이즈 또한 이처럼 비정형의 대지에 조성되었다(Pennick, 1996: 45)(그림 19 참조).

17세기 후반 이래 미로 정원의 새로운 흐름을 이끈 것은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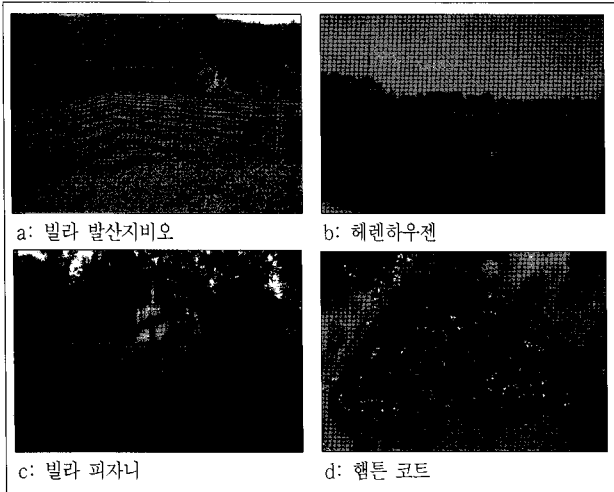


그림 19. 르네상스 이후 정원 미로의 예

자료: a: <http://www.flickr.com>
 b: <http://commons.wikimedia.org>
 c: <http://folliesofeurope.com>
 d: <http://www.math.nus.edu.sg>

랑스였다. 베르사유의 미로는 그 형태가 매우 독특한데, 기존의 정원 미로처럼 순환하는 형태가 아니었다(그림 20 참조). 르 노트르의 목표는 하나의 길을 따라 가는 미로 정원이 아니라, 호기심을 따라 산책하는 길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각 코너에는 라 폰텐의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물들의 분수를 놓아 즐거움을 더했다. 베르사유의 미로는 다른 미로와 달리 길을 따라 가면 도달하는 중앙이 없고 출입구도 여러 곳에 있다. 정원 안내서를 집필할 정도로 베르사유 정원을 아꼈던 루이 14세는 스스로 여러 방식으로 정원을 발견하는 것을 즐겼다고 했을 만큼 이 곳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각각의 분수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이는 진행 방향과 관련이 없고 순서대로 가려면 몇 번이고 갔던 길을 되돌아 와야 한다. 즉,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미로 정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미로라고 불리는 모순이 일어난다²⁵⁾. 정원 속의 미로는 앞서 살펴보았듯 정형식 정원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풍경식 정원과 픽처레스크 미학이 유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정원 요소로서의 정원 미로는 다른 기하학적 요소와 함께 점차 쇠퇴한다²⁶⁾.

IV. 결론

문명의 초기부터 인류와 함께 온 미로는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정원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본 연구는 정원에 나타난 미로 정원의 면면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변화는 고전의 재발견을 통해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가 재해석되었고, 다양한 문헌과 이미지를 통해 정원 미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사각형이나 팔각형, 원형의 기하학적 형태가 정형식 정원에 하나의 정원 요소로 도입되기에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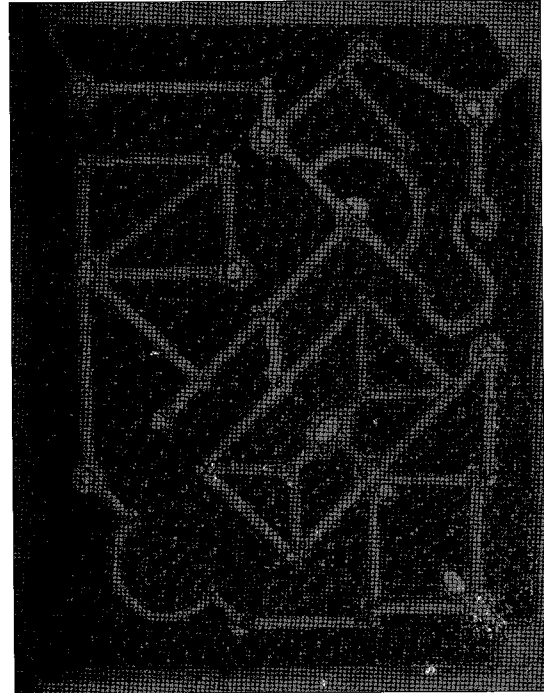


그림 20. 르 클렉: 베르사유의 미로, 1677
 자료: 파리 프티 팔레

했다는 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정원 안의 미로를 걷는 것은, 과거 중세의 참회 미로와 달리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유희한 행위였고,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런 세속적인 여흥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극대화 된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난 사당의 정원으로서의 정원 미로이다. 중세에 성당 바닥의 참회 미로가 붐을 이루었다가 사그라졌듯, 엄격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한데다가 끊임없는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정원 미로 또한 보다 자연스러운 풍경식 정원이 유행하게 되면서 취향의 변화와 함께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 픽처레스크 정원의 정원 속을 거니는 이들을 해매게 만드는 비대칭적인 구성과 구불구불한 길 등의 특징은 그 전체가 자연이 만든 일종의 미로와도 같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미로와 정원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미로의 이미지가 현실의 복잡함을 훌륭하게 시각화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면, 정원은 푸코가 말했듯 “세상의 가장 작은 조각이자 세계의 전부이다(Foucault, 1994: 759)”. 정원은 어원적·물리적으로 볼 때 위요된 장소이고, 이는 미로와 근본적인 성격과도 일치한다. 또한 미로는 정원의 한 요소인 동시에 정원 자체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원 내의 미로는 단지 하나의 장식적·유희적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물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질서 잡히고 모든 것이 생성하는 지상 낙원을 구현하는 정원과, 설계된 것이기에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가장 혼란스러운 세계를 상징하는 미로라는 상충

하는 두 요소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르네상스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원에 나타난 미로의 유형과 형태, 배치 등의 형식적 요소와 그 안에서의 행위와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이의 확장된 연구로서 타 장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서사 방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미로의 원형비평적 해석, 개별 미로 정원에 담긴 사회·문화사적 의미의 탐색, 혹은 20세기 말 대지 미술과 조경 분야 등에서 다시 부각된 미로와의 연관 등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정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원상 위오(enclosure)되거나, 주위와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고대 영어의 *geard*나 인도-유럽어족의 *gher*와 *ghort*가 라틴어 *gardinum*이 되었고, 이것이 중세 프랑스어 *gardin*과 영어 *gardyne*을 거쳐 이탈리아어 *giardino*와 프랑스어 *jardin*이 되었다(Hunt, 2000: 17-20).
- 주 2. 일레로, 19세기 말 프랑스의 작가 네르발(Gérard de Nerval, 1851)이 쓴 「동방여행(Voyage en Orient)」에서 주인공은 즐거움의 장소(*locus amoenus*)로 나일강가의 정원처럼 꾸민 섬을, 무서움의 장소(*locus horridus*)로 바뀌어 만들어진 미로를 묘사한 바 있다.
- 주 3. 특히, 최근의 문학 작품 분석과 비평에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작품과 에코(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The Name of the Rose)」 등의 현대 작품뿐만 아니라, 라 폰텐(Jean de La Fontaine)의 「이솝우화(Les fables d'Ésope)」, 조설근(曹雪芹)의 「홍루몽(紅樓夢)」 등의 고전문학 작품의 구조와 의미 분석에서도 미로를 해석의 틀로 활용하기도 한다.
- 주 4.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놓은 미로를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건축과 공예의 명인이었던 그는 르네상스 이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술적·예술적 업적의 상징이 되었다. '다이달로스'라는 잡지명 또한 여기에서 유래한다.
- 주 5. 이외의 베르나르 추미는 피라미드와 미로의 대비를 통해 건축의 역할을 사유했고, 반 아이크는 자신의 설계 개념을 '미로적 간결함'으로 정의했다. 리베스킨트는 단편화된 오브제와 이탈된 건축적 사유의 표상으로 '해체된 미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아탈리는 MVRDV의 작품을 '수직적 미로'에 비유해 평했다. 이처럼 우리는 현대 건축에서 미로의 메타포를 사용한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도시 구조나 교통 체계 등의 분야에서도 미로에 비유하기도 한다(봉일범, 2005: 14-15).
- 주 6. 「세계의 미로로서의 정원(Le jardin comme labyrinthe du monde)」이라는 제하의 국제 콜로키엄(2007년 5월 24일, 루브르 오디오리움)에서 발표된 내용은 2008년 말 동명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 주 7. 양날 도끼는 크레타 왕들의 상징으로서 (...) 제정일치 시대의 왕이 지닌 창조와 파괴의 능력을 상징한다(Attali, 1996: 23).
- 주 8. 많은 고대 미로는 또한 춤이기도 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를 빠져나온 뒤 델로스 섬의 길목으로 들어서 자신이 빠져나온 미로에서 착안해서 길인 동시에 행렬이며 최면 상태인 춤을 추며 되찾은 자유를 축하했다. 낚시 혹은 말을 탄 젊은이들이 미로 형태를 이루며 춤을 '트로이 게임'이라고 알려졌고, 도시와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의 하나였다.
- 주 9. 그러나 아직 우리말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미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둘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래버린스'와 '메이즈'로 표기한다.
- 주 10. 미로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중심으로의 회귀, 낙원 회복,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함, 이니시이션과 죽음과 재생, 세속적인 곳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 죽음과 삶의 비밀, 현재의 고난이나 망상을 꿰고 빠져 나가서 얻은 깨달음이나 하늘을 의미하는 중심으로 가는 여

행, 영혼을 증명함, 내세로 도망치는 여행길, 풀리지 않는 매듭, 위험, 곤란함, 숙명, 지모신의 육체, 불가해, 복잡한 문제, 무한의 지속, 마법의 숲, 만물을 엮어 놓은 '하늘의 줄' 등이 있다(Cooper, 1978: 188).

- 주 11. 그리스인들이 세계7대 불가사의의 하나에 넣은 이 피라미드는 12 지방이 모여 하나의 왕국을 건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다. 미로에 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헤로도토스는 이 건축물을 '이집트의 미로'라고 불렀으며, 그 중 가장 유일하게 접근이 가능했던 1층을 묘사했다. 그는 포장된 12개의 안뜰을 연이어 지나고 2단으로 축조된 각 1,500개씩의 방을 연달아 두 번이나 거쳐 나가야 하는 방문객이 느껴야 했던 현기증을 전해준다(Attali, 1996: 41).
- 주 12. 세틀리오의 기록에 의하면 다이달로스는 이집트에서 미로를 보고 여기에 매료되어 크레타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었지만, 그가 살던 당시에는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Serilo, 1619: 245).
- 주 13. 유일한 예는 여호수아가 예리코를 점령할 때, 성읍을 일곱 번(전형적인 미로의 겹)을 돌자 성이 무너졌다는 간접적인 내용이다 [여호수아기 제6장].
- 주 14. 서쪽 장미창의 스테인드글라스와 동일한 크기에도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샤프트르의 원형 미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훌륭한 교회 미로의 예의 하나이다. 원의 바깥쪽은 흰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는 113개의 꽃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원의 안쪽에는 푸른 대리석 띠로 분리된 열 한 개의 동심 고리가 있고, 이것이 막다른 길이나 위장된 길 없이 이어진 미로를 형성한다. 미로를 따라가다 보면 중심에 도달한다고 믿는 순간 다시 가장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 주 15. 미로 디자인의 역동적인 성격과 장식적 목적에의 적합성,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로는 정원 조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특히 르네상스와 바로크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기하학 정원에 잘 나타난다(Kern, 1982: 247).
- 주 16. 추기경 프란체스코 곤자가가 로마에 있는 자신의 정원에 조영한 미로가 최초로 기록된 정원 미로의 예로 알려져 있다(Lazzaro, 1990: 51).
- 주 17.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덩굴 미로(tuft maze)를 일레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용지(communs)나 언덕 등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원 미로라고 보기는 힘들다.
- 주 18. '살아있는 유적(monuments vivants)'인 정원과 마찬가지로 식물을 매체로 하는 미로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식물의 속성상 한시적이고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 여름 밤의 꿈」에서 요정 여왕 티타니아가 「무성한 풀 속의 기발한 미로가, 걷는 이가 없어서 알아 볼 수 없게 되었군요(And the quaint mazes in the wanton green, / For lack of tread, are undistinguishable)」라고 한탄했듯 곧 사라질 수밖에 없다.
- 주 19. 페라리는 그의 저서 「꽃의 재배에 대하여(De Florum Cultura)」에서 「바닥이나 천장에 서처럼 정원에서도 미로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우리의 시대에는 고대의 다이달로스처럼 기술과 다이달로스 같은 이들이 있다(Quot in pavimentis atque in laeunariis, totidem in hortis maeandros ludinus & labyrinthos. Ut daedaleam antiquitatem aetas nostra longè fuperet quà ingenio, quà numero daedalorum)」(Ferari, 1633: 23).」라고 말한 바 있다.
- 주 20. 1420년경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인 조반니 폰타나의 미로 설계서가, 15세기 중반에는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건축 이론서에서 고대 로마의 미로가 상기되었다. 15세기 후반 프란체스코 디 지오르지의 건축 이론서에서는 미로가 반드시 필요한 정원 장식물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Lazzaro, 1990: 51).
- 주 21. 정원 미로 조영에는 관목뿐만 아니라 구스베리나 넝쿨장미, 포도, 제스민, 마르멜로, 도금양, 인동덩굴 등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식물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켰다(Lazzaro, 1990: 51-52).
- 주 22. 빌라 테스테의 정원에 유독 미로가 많은 것을 정원의 소유자인 이폴리토 테스테가 정원 내 도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동일시한 신화속의 영웅 히폴리토의 아버지이자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영

웅인 테세우스에게 바치는 경의로 해석하기도 한다(Brunon, 2008: 111).

- 주 23. 빌라 주스티에서 미로는 중심축을 형성하는 사이프러스 소로와 마주 하고 있지만, 파테르로 분리된 빌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빌라 테스테에서는 파테르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심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빌라 란테에서는 주 정원의 측면에 있는 총립 안에 미로가 조성되었다. 프라톨리노에서는 예외적으로 중심축에 배치되었다. 이탈리아 이외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몽타르기나 킬리에서 미로 정원은 정원 요소 중 미미한 요소에 불과했고, 영국에서도 중심축 밖에 있었다.
- 주 24. '사랑의 정원'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정원 미로는 특히 1550~1650년 사이에 유행했다. 중세 필사본에 나오는 '사랑의 정원'과 달리 미로 형태의 사랑의 정원은 에로틱한 사랑의 복잡성과 양가적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종종 미로 가운데 놓인 나무는 성경의 에덴동산에 언급된 '생명의 나무'를 상징했고, 이 경우 미로를 따라 걷는 연인은 아담과 이브와 비교되었다(Kern, 1982: 226).
- 주 25. 와이스는 이를 베르사유의 미로가 루이 14세가 스스로 정원 감상에 대한 안내서를 집필할 정도로 미로적인 성격을 띤 베르사유의 정원 전체에 대한 은유라고 평한 바 있다(Weiss, 1995: 73). 한편, 코난은 이를 당대의 궁정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사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한 바 있다. 그는 이를 루이 14세의 궁정 내의 정치적 상황, 프레스오지테(présiosité)라고 하는 세련된 매너와 화술이 바탕이 된 사교계의 유희, 놀이, 인지지도, 기억술, 중용을 지키는 모랄리스트를 지칭하는 오네트 옴므(honnête homme)에 대한 표상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다(Conan, 1992: 119-150).
- 주 26. 한편, 텍커는 강한 중심축이 지배적인 형식주의 정원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이지만, 길들이 불규칙하고 굽어 있는 풍경식 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바를 지적한다. 이러한 풍경식 정원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자연이 만든 미로이고, 당시에도 이런 길들의 조합을 '미로 같은(labyrinthine)'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후 유행한 숭고(sublime)의 미학과 관련하여, 풍경식 정원의 동굴 또한 물이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지하와의 연결, 어둠과 공포 등의 요소로 미로와 연관될 지어 볼 수 있다(Thacker, 1982: 60-68).

인용문헌

- 강민성(2002) 건축놀이: 미로, 피복, 텍토닉.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겸, 임종엽(2004) 미궁과 미로의 구성원리에서 나타나는 공간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4(2): 487-490.
- 박해성(2000) 미로에서의 공간 체험과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봉일범(2005) 미로. 서울: 시공문화사.
- Alberti, Leon Battista(1484)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oseph Rykwert, Neil Leach and Robert Tavernon(1989). Mass. Cambridge: The MIT Press.
- Attali, Jacques(1996) Chemins de sagesse-Traité du labyrinthe. 이인철(역), 미로: 지혜에 이르는 길. 서울: 영림카디널, 1997.
- Brunon, Hervé(ed.)(2008) Le jardin comme labyrinthe du monde. Paris: PU Paris-Sorbonne.
- Carpeggiani, Paolo(1990) Labyrinth in the gardens of the Renaissance. In Monique Mosser and Georges Teyssot, eds.,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e Western Tradi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London: Thames & Hudson. pp. 84-87.
- Collectif(2003) Labyrintes: du mythe au virtuel. Paris: Paris-Musée.
- Colomina, Beatriz(2002) Architectureproduction. In Kester Rattenbury, ed., This is not Architecture: Media Constructions. London, New York: Routledge.
- Conan, Michel(1992) The Conundrum of Le Nôtre's Labyrinthe. In John Dixon Hunt, ed., Garden History: Issues, Approaches, Methods.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p. 119-150.
- Cooper, J. C.(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이윤기(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 상징 문화 사전. 서울: 까치, 2001.
- Doob, Penelope Reed(1990) The Idea of the Labyrinth from Classical Antiquity to the Middle Ag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errari, Giovanni Battista(1633) De Florum Cultura Libri IV. Rome: excudebat Stephanus Paulinus.
- Foucault, Michel(1994) Dits et écrits 1954-1988, IV, 1980-1988, eds., by Daniel Defert and François Ewald. Paris: Gallimard.
- Hunt, John Dixon(2000)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London: Thames & Hudson.
- Jung, Carl Gustav and Charles Kerényi(1941) Introduction à l'essence de la mythologie. L'enfance divin, la jeune fille divine. Paris: Payot & Rivages, 2001.
- Kern, Hermann(1982) Through the Labyrinth: Designs and Meanings over 5,000 Years. eds., by Robert Ferré and Jeff Saward. München, London, New York: Prestel, 2000.
- Lazzaro, Claudia(1990) The Italian Renaissance Gard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tthews, William Henry(1922) Mazes and Labyrinths: Their History and Development. New York: Dover.
- Oechslin, Werner(1982) The Labyrinth as the Apotheosis of Garden Architecture. Daidalos 3: 52-58.
- Ovidius(3) Metamorphoses. 이윤기(역), 변신이야기. 서울: 민음사, 2002.
- Pennick, Nigel(1996) Mazes and Labyrinths. London: Robert Hale Ltd.
- Pérez-Gomez, Alberto(1985) The Myth of Daedalus. AA Files 10: 49-52.
- Serlio, Sebastiano(1619) Sebastiano Serlio on Architecture: Translated from the Italia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Vaughan Hart and Peter Hic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Tafari, Manfredo(1987) The Sphere and the Labyrinth: avant-gardes and architecture from Piranesi to the 1970s. Cambridge, Mass.: MIT Press.
- Thacker, Christopher(1982) That Long Labyrinth of Darkness: The Landscape Garden and the Maze. Daidalos 3: 59-69.
- Weiss, Allen S.(1995) Mirrors of Infinity: The French Formal Garden and 17th-Century Metaphysic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Wright, Craig(2001) The Maze and the Warrior: Symbols in Architecture, Theology, and Mus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ttp://commons.wikimedia.org>
- <http://foliesofeurope.com>
- <http://www.culture.it>
- <http://www.dilos.com>
- <http://www.flickr.com>
- <http://www.labyrinthos.net>
- <http://www.math.nus.edu.sg>

원 고 점 수 일: 2010년 6월 25일
 심사 일: 2010년 10월 1일(1차)
 2010년 10월 13일(2차)
 게재 확정 일: 2010년 10월 13일
 4인익명 심사필